

2025

KCTI 데이터 포커스 제2호

---

# 산불의 관광소비 영향과 특징 :2025년 경북·경남 산불 분석

---

김상태(데이터전략실 차석전문원)

윤수영(데이터전략실 부연구위원)

stts@kcti.re.kr

Tel : 02-2669-8903

## 목 차

1.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대형산불 현황
3. 2025년 경북·경남 산불의 관광소비 영향
4. 관광소비 영향 특성 및 시사점

## 요 약

### □ 분석내용

- 본 연구는 2025년 3월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사례를 중심으로, 카드 소비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소비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

### □ 관광소비 영향

- 산불 발생 직후 경북·경남 8개 시군의 관광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3.1% 감소
- 업종별로는 음식점업(-13.5%), 레저스포츠업(-12.6%), 숙박업(-7.7%) 순으로 감소폭이 컸음
- 지역별로는 청송군(-40.1%), 안동시(-34.9%), 영덕군(-33.4%)에서 감소가 큼
- 청송군의 숙박업 소비는 -75.4%를 기록해 주왕산 국립공원 산불의 직접적 영향을 반영함
- 4월(14~17주차)에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 복구 지원과 자원봉사단, 공공·민간 등의 현지 체류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숙박업과 음식점업 소비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남
- 관광의존도에 따라 회복 양상에 차이를 보임(관광의존도가 높은 청송군, 안동시, 영덕군 등은 감소폭이 큼. 관광의존도가 낮은 영양군과 의성군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완만)

### □ 관광소비 회복

- 5월 초 연휴를 계기로 소비가 일시 반등했으며, 23주차(6월 초, 산불발생 10주 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 7~8월 성수기를 통해 회복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 산불 발생 시 관광정책 대응 방향

1. **(지역별 맞춤 대응 필요)** 관광산업 피해 규모는 단순한 산불의 크기보다 관광지 입지, 관광 산업 비중, 관광객 유입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역별 관광의존도와 산업 구조에 대한 진단 선행 필요
2. **(재난 초기 체류수요 유도)** 재난 발생 직후 관광수요 감소를 완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부 체류수요를 유도할 필요. 향후 재난 발생 시, '복구인력+공공 체류 프로그램+MICE'를 조기 가동하는 체계적 대응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회복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피해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홍보 캠페인, 할인 프로모션 등이 중요
4. **(회복 시나리오 사전 설정)** '3~4월 산불 → 4월 체류수요 유입 → 5월 연휴 반등 → 6월 회복'의 소비 흐름을 고려해, 유사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회복 시나리오와 대응 모델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

## 1. 배경 및 목적

### □ 분석배경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 면적이 넓고 강풍이 불어오는 지역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4월 강원도 인제·고성·속초·강릉·동해를 비롯해, 2022년 3월 경북·강원권(울진·삼척·강릉·동해), 그리고 2025년 3월에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산불이 발생
- 이러한 산불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특히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
  - 관광객 급감, 숙박 및 음식점 매출 하락, 예약 취소 등의 소비 위축 현상이 동반되며, 피해 면적이 넓고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 따라서 산불로 인한 관광피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대응과 정책 설계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

### □ 분석목적

- 본 보고서는 2025년 3월 경북·경남 산불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한 비거주자(관광객)의 카드 소비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 분야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 특히 산불 발생 이후 관광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수치로 파악함으로써 지역별 피해 특성과 차이를 검토함
- 이를 통해 산불피해 지역의 관광회복 전략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2. 한국의 대형산불 현황

### □ 건조한 봄철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

- 산불은 3월~4월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에 의해 크게 확산이 되어 환경·경제·사회적인 면에서 피해를 주고 있음
- 최근 산불은 매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고성, 강릉, 삼척 등에서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

### 1) 2019년, 2022년 산불

- 최근 대형산불은 2019년 강원 산불,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산불이 있으며 두 지역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

- 2019년 강원 산불은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면적은 2,872ha, 피해액은 약 2,518억 원임
- 2022년 3월에는 경북 울진·강원(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대규모 산림이 소실(울진군 14,140ha, 삼척시 2,162ha 등) 되었고, 피해액은 약 9,086억 원이 발생함

〈표 1〉 최근 대형산불 현황

산불지역	기간	피해면적	피해액	최대풍속
강릉·삼척 산불	2017.5.6.~5.9.(4일간)	강릉 252ha, 삼척 765ha	강릉 213억원 삼척 395억원	23m/sec
삼척 산불	2018.2.11.~2.13.(2일간)	161ha	77억원	10.8m/sec
고성 산불	2018.3.28.06:19~3.28. 22:00(16시간)	357ha	221억원	10m/sec
강원 산불 (인제·고성·속초·강릉·동해)	2019.4.4.~4.6.(3일간)	2,872ha	2,518억원	35.6m/sec
울주 산불	2020.3.19.13:51~3.20. 18:00(28 시간)	519ha	280억원	19.1m/sec
안동 산불	2020.4.24.15:39~4.27. 18:00(74시간)	1,944ha	1,063억원	18.8m/sec
고성 산불	2020.5.1. 20:10~5.2. 9:00(13시간)	123ha	37억원	19.1m/sec
안동·예천 산불	2021.2.21. 15:20~2.23. 7:20	419ha	177억원	13m/sec
경북 울진·강원 산불 (울진·삼척·강릉·동해)	2022.3.4.11:17~3.13. 9:00(213 시간)	울진 14,140ha, 삼척 2,162ha	9,086억원	27m/sec
금산·대전 산불	2023.4.2. 12:22~4.4. 16:40(52시간)	889ha	428억원	13m/sec
홍성 산불	2023.4.2. 11:00~4.4. 16:00(53시간)	1,337ha	899억원	10m/sec
경북·경남 산불 (안동, 영덕, 의성, 산청, 울주 등)	2025.3.22.~3.28.	104,000ha	1조 818억원	-

자료 : 산림청(2025.4.18.); 산림청(2025. 5.16.);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5.5.2.)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2) 2025년 경북·경남 산불

### □ 2025년 3월 경북·경남에서 최대 규모의 산불 발생

- 최근 3월 발생한 산불은 1조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산불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규모가 가장 컸음(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5.5.2.)
-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5.5.2.)
- 산불발생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피해 면적은 경북 99,289ha, 경남 3,397ha, 울산(울주) 1,190ha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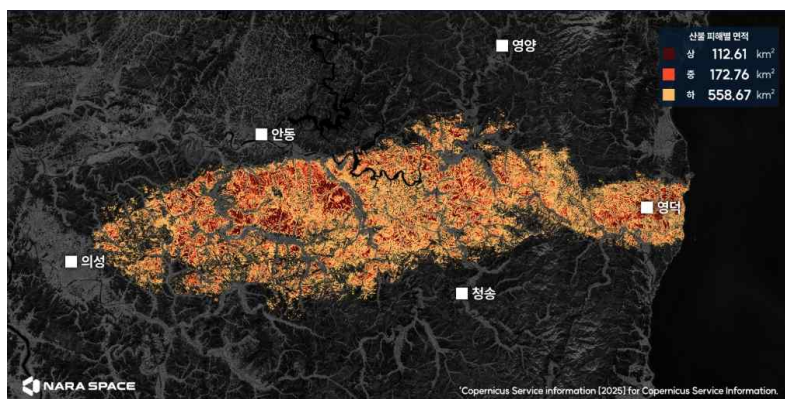
〈표 2〉 2025년 3월 산불피해 지역별 현황

산불지역	피해면적(ha)	피해액(백만원)
경북 의성군	28,853	209,602
경북 안동시	26,709	301,079
경북 청송군	20,655	250,562
경북 영양군	6,864	57,310
경북 영덕군	16,208	231,926
경남 산청군	2,403	21,664
경남 하동군	994	7,063
울산 울주군	1,190	2,542
그 외 지역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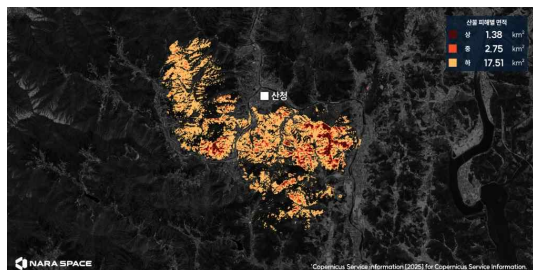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2025.4.18.);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5.5.2.)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1] 산불피해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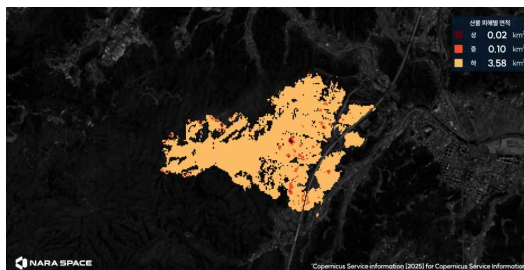
경북 의성-영덕 산불 심각도별 피해



경남 산청 산불 심각도별 피해



울산 울주군 산불 심각도별 피해



자료 : Nara Space(2025.5.29.)

- 산불로 인한 시설피해 및 대피인원은 경북 안동시, 영덕군, 청송군에서 크게 나타남
- 이번 산불은 경북·경남 산림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피해는 안동시, 영덕군, 청송군의 비중이 큼

〈표 3〉 시설피해 및 대피인원 현황

산불지역	시설피해, 개소 (주택, 농업시설 등)	주민대피, 명 (임시대피시설, 임시숙박시설)
경북 의성군	1,102	190
경북 안동시	3,202	1,184
경북 영덕군	2,347	777
경북 영양군	234	85
경북 청송군	1,315	705
경남 산청군	69	-
경남 하동군	15	2
울산 울주군	171	1

자료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5.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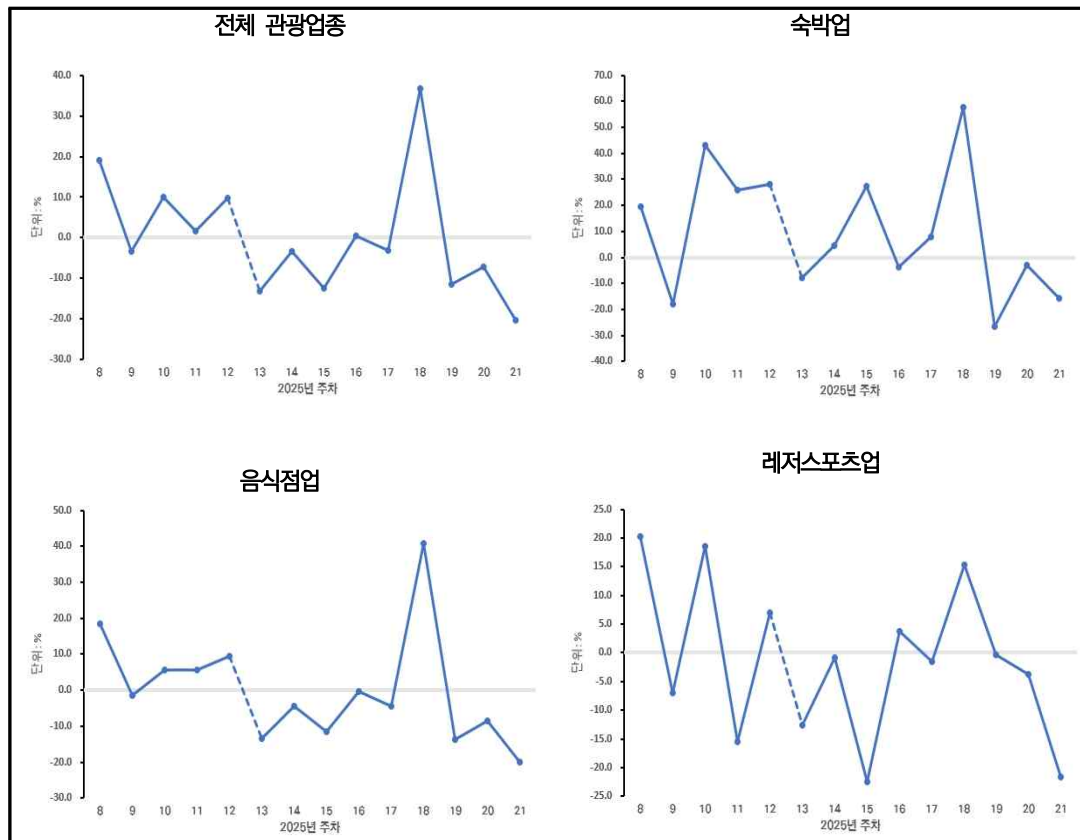
### 3. 2025년 경북·경남 산불의 관광소비 영향

#### 1) 업종별 영향

- 전체 관광업종 소비지출은 2025년 3월 산불 발생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18주차(5월 초 연휴)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났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임
- [그림 2]와 〈표 4〉는 경북·경남 8개 산불발생 지역의 관광소비지출 증감률을 나타냄
  - 분석 대상 업종은 전체 관광업종, 숙박업, 음식점업, 레저스포츠업임
  - 경북 안동시, 영덕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의 비거주자 관광소비지출을 분석함
- 산불이 진화된 13주차 기준 전체 관광소비지출은 -13.1%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업(-13.5%), 레저스포츠업(-12.6%), 숙박업(-7.7%) 순으로 감소폭이 컸음

[그림 2] 경북·경남 8개 시군 관광소비지출 변화

단위: 전년동기대비, %



주: 그래프의 점선은 산불발생시기(12주차, 13주차)를 나타냄

〈표 4〉 경북·경남 8개 시군 관광소비지출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기간	2.17~ 2.23	2.24~ 3.02	3.03~ 3.09	3.10~ 3.16	3.17~ 3.23	3.24~ 3.30	3.31~ 4.06	4.07~ 4.13	4.14~ 4.20	4.21~ 4.27	4.28~ 5.04	5.05~ 5.11	5.12~ 5.18	5.19~ 5.25
업종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17주차	18주차	19주차	20주차	21주차
전체관광업종	19.1	-3.3	10.1	1.7	9.8	-13.1	-3.3	-12.5	0.5	-3.0	36.8	-11.5	-7.2	-20.3
숙박업	19.6	-17.9	43.1	25.8	28.0	-7.7	4.6	27.3	-3.8	7.7	57.7	-26.7	-3.0	-15.8
음식점업	18.6	-1.5	5.5	5.6	9.3	-13.5	-4.4	-11.5	-0.5	-4.4	40.8	-13.6	-8.5	-20.1
레저스포츠	20.3	-7.0	18.5	-15.6	6.9	-12.6	-0.9	-22.4	3.7	-1.5	15.4	-0.4	-3.7	-21.6

주: 표의 회색음영은 산불발생시기(12주차, 13주차)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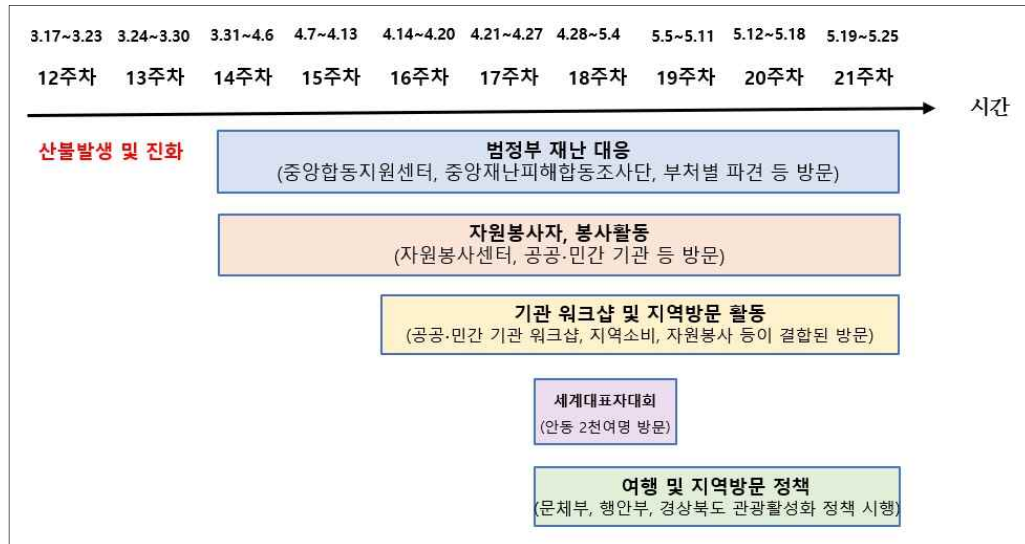
□ 4월(14~17주차)에는 범정부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을 위한 외지인 방문 증가로 숙박업과 음식점업에서 소비지출 반등이 나타남

○ 자원봉사자, 공공·민간기관 워크숍 등 방문 수요가 발생하여 숙박업과 음식점업에서 소비지출이 일시적으로 상승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파견, 국가트라우마 중심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 자원봉사자 방문 및 기관 워크숍 실시
- 4월 28일부터 3박 4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MICE 행사 실시(세계대표자 대회)

- 문체부, 행안부, 경북도 등 산불발생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으로, 5월 말 이후 관광 소비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그림 3] 산불 회복을 위한 대응



<표 5> 산불 회복을 위한 대응 내용

구분	내용
법정부 재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5.4.12.)</li> <li>- 경북·경남 2개소, 3.27.~</li> <li>- (참여기관) 행안·복지·환경·교육부, 국세청,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 등</li> <li>- 민원처리, 장례지원, 용자·세금 상담 등 산불 피해자 원스톱 안내·접수 추진</li> <li>• 130명 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지역 파견(박소정, 2025.4.9.)</li> <li>• 국가트라우마 중심 통합심리지원단 구성(3.31) 및 심리지원(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5.4.12.)</li> <li>- 국가트라우마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권역트라우마센터((영남, 국립부곡병원), (강원, 국립춘천병원)) 등</li> <li>- 행안부(재난심리회복지원단), 고용노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지자체(울산·경북 등) 참여</li> </ul>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에 자원봉사자 1만여 명 참여(김종현, 2025.4.6.)</li> <li>-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 197명(644개 단체)의 자원봉사자가 피해지역에 도움</li> <li>-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 5월 31일까지 산불 피해지역에서 활동 지속</li> <li>• 서울시,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역에 2차 봉사의 손길(강환웅, 2025.4.24.)</li> <li>- 총 80여 명의 의료진, 서울시청 공무원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단 방문</li> </ul>
기관 워크숍 및 지역방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포항고용노동지청, 영덕서 노사정 워크숍 열어(황성호, 2025.6.8.)</li> <li>- 6.4일부터 5일까지 경북 영덕에서 노사정 워크숍과 진달래 묘목 심기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li> <li>• 행안부, 공무원 대상 위케이션과 워크숍 추진(김은유, 2025.5.28.)</li> <li>• 대구 북구청,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권용현, 2025.6.18.)</li> <li>- 북구 23개 동 주민자치위원 115명이 참여, 영덕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li> </ul>
세계대표자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동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실시(박진호, 2025.5.3.)</li> <li>- 4월 28일부터 3박 4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시내 일원에서 열림</li> <li>- 세계 51개국 108개 도시에서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900여 명과 13개국 100여 명의 해외 바이어 등 2천여 명 이상이 참여</li> </ul>
여행 및 지역방문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 최근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관광으로 회복 지원(문화체육관광부, 2025.4.23.)</li> <li>-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응원하는 '여행+동행 캠페인' 추진</li> <li>- 지역 특화 여행상품 개발, 주요 행사·연수회(워크숍) 개최 독려 등을 추진</li> <li>• 행안부 산불피해 지역 개최 '지역축제·행사' 통합홍보, 지역소비 회복 지원(하중숙, 2025.5.2.)</li> <li>-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객 방문 혜택 제공</li> <li>-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 및 '희망여행 기획전' 실시</li> <li>•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회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실시(경상북도, 2025.5.1.)</li> </ul>



## 2) 지역별 영향

### □ 관광의존도<sup>1)</sup>가 높은 지역일수록 산불 이후 관광 소비지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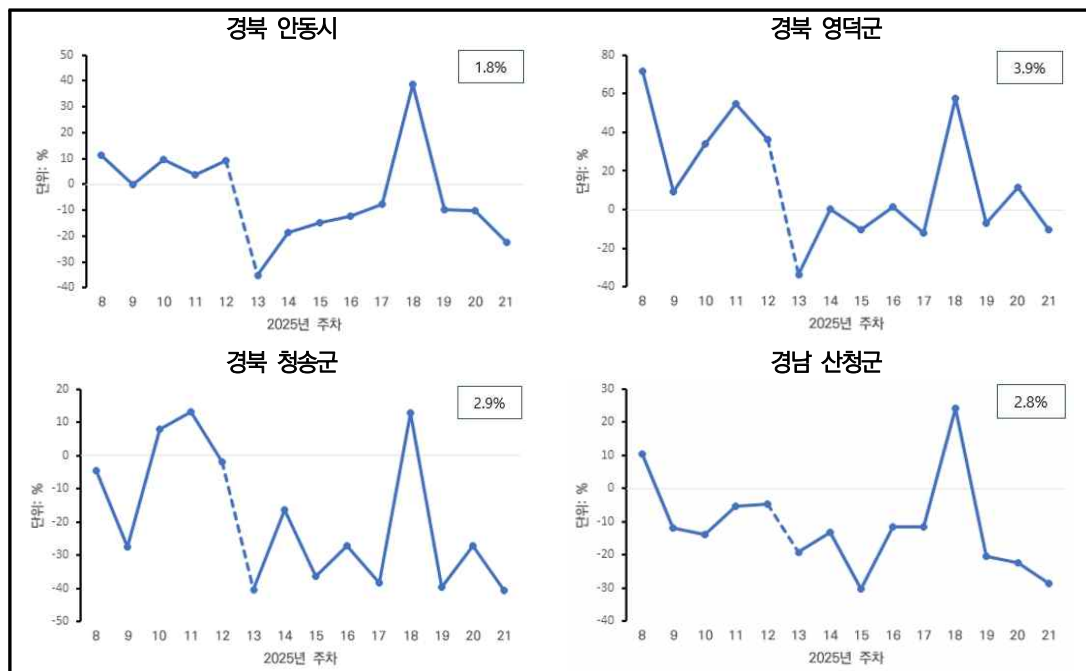
- 청송군은 -40.1%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안동시(-34.9%)와 영덕군(-33.4%)도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이들 지역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산불 발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소비지출 감소로 연결됨
- 반면 관광의존도가 낮은 지역인 영양군(-5.5%)과 의성군(-4.0%)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폭을 나타냄

### □ 14주차 이후 지역별 관광소비지출의 회복 양상은 관광의존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 관광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14~17주차에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18주차 연휴를 지나면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 관광의존도가 낮은 지역은 초기에 소비지출 감소폭이 작지만 완전 회복 없이 일정 수준의 감소 유지

[그림 4] 지역별 관광소비지출 변화 (관광의존도 높은 지역)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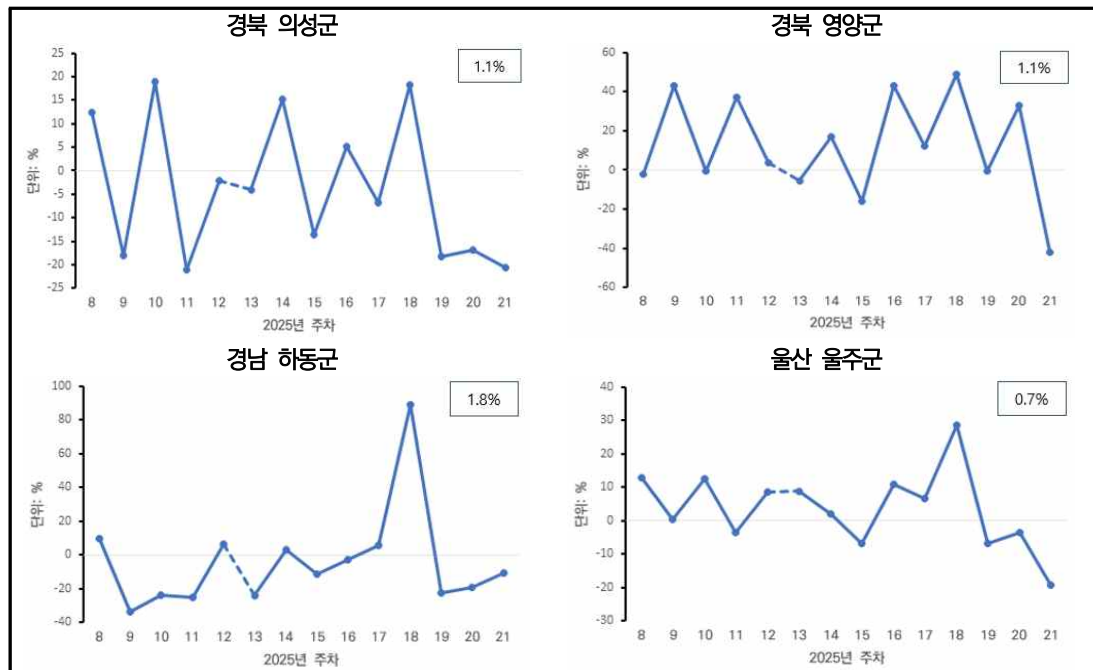
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시도 평균보다 높은 지역(경상북도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 1.6%, 경상남도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 2.1%, 울산광역시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 1.0%)

자료 : 통계청(2025.6.9.). 2021년 지역내총생산(GRDP)

1) 본 연구에서는 관광의존도를 지역내총생산(GRDP)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으로 정의

[그림 5] 지역별 관광소비지출 변화 (관광의존도 낮은 지역)

단위: 전년동기대비, %



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시도 평균보다 낮은 지역(경상북도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 1.6%, 경상남도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 2.1%, 울산광역시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 1.0%)

자료 : 통계청(2025.6.9.). 2021년 지역내총생산(GRDP)

〈표 6〉 지역별 관광소비지출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지역	기간	2.17~ 2.23	2.24~ 3.02	3.03~ 3.09	3.10~ 3.16	3.17~ 3.23	3.24~ 3.30	3.31~ 4.06	4.07~ 4.13	4.14~ 4.20	4.21~ 4.27	4.28~ 5.04	5.05~ 5.11	5.12~ 5.18	5.19~ 5.25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17주차	18주차	19주차	20주차	21주차
관광 의존도 높은 지역	안동시	11.5	0.1	9.5	3.7	9.3	-34.9	-18.5	-14.8	-12.1	-7.8	38.8	-9.7	-10.0	-22.5
	영덕군	71.4	9.3	34.0	54.7	36.4	-33.4	0.4	-10.3	1.6	-12.2	57.9	-6.9	11.3	-10.6
관광 의존도 낮은 지역	청송군	-4.5	-27.6	7.9	13.3	-1.9	-40.1	-16.4	-36.3	-27.2	-38.2	12.7	-39.7	-27.2	-40.7
	산청군	10.3	-11.9	-13.7	-5.5	-4.8	-19.2	-13.2	-30.4	-11.7	-11.7	24.3	-20.4	-22.4	-28.5
관광 의존도 낮은 지역	의성군	12.3	-18.1	18.9	-21.0	-2.1	-4.0	15.2	-13.6	5.2	-6.9	18.3	-18.2	-16.8	-20.6
	영양군	-1.9	43.2	-0.8	37.3	3.5	-5.5	17.2	-16.0	43.0	12.3	49.0	-0.6	32.7	-42.1
관광 의존도 낮은 지역	하동군	9.7	-33.4	-23.6	-25.4	6.7	-23.6	3.3	-11.5	-3.1	6.0	88.7	-22.3	-19.4	-10.7
	울주군	13.0	0.4	12.5	-3.5	8.6	9.0	2.2	-6.9	11.0	6.6	28.5	-6.9	-3.6	-19.2

#### □ 청송군의 숙박업 소비지출은 2025년 13주차 기준 전년동기대비 -75.4% 감소

○ 주요 관광지인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산불 발생 → 탐방로 전면 통제 → 관광객 급감 → 숙박업 소비지출 크게 감소

- 주왕산 탐방로는 산불 이후 4월 24일(17주차)에 1개 구간 부분 개방, 5월 1일(18주차)에 7개 구간 추가 개방(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2025a)
- 현재 대전사~장군봉~금은광이삼거리 구간, 너구마을~금은광이삼거리~용연폭포(금은광이입구) 구간 제외하고 모든 구간 개방(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2025b)

[그림 6] 주왕산 국립공원 피해 현황



자료 : 최수호·이강일·김선형(2025.3.28.)



자료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2025a)

주 : 산불 발생 후 탐방로 통제, 4월 24일 1개 구간 개방, 5월 1일 7개 구간 개방, 그림에서 붉은색은 4월 24일 기준 통제 구간

## □ 안동시와 영덕군, 산청군 숙박업 소비지출 증가세

- 안동시는 15주차 기준 124.0%, 영덕군은 107.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8주차에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79.3%, 212.8% 증가함
  - 범정부 재난대응 활동 및 복구지원으로 외지인의 체류가 늘어난 영향(범정부 대응 및 자원봉사자 등 상주 → 숙박업 소비지출 증가)

〈표 7〉 지역별 숙박업 소비지출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지역	기간	2.17~ 2.23	2.24~ 3.02	3.03~ 3.09	3.10~ 3.16	3.17~ 3.23	3.24~ 3.30	3.31~ 4.06	4.07~ 4.13	4.14~ 4.20	4.21~ 4.27	4.28~ 5.04	5.05~ 5.11	5.12~ 5.18	5.19~ 5.25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17주차	18주차	19주차	20주차	21주차
관광 의존도 높은 지역	안동시	34.1	20.8	196.2	34.8	96.4	42.5	16.0	124.0	10.7	20.1	79.3	-9.3	36.0	-11.3
	영덕군	293.8	86.5	223.6	184.6	148.2	-28.3	133.3	107.1	101.8	59.9	212.8	21.1	62.6	99.1
관광 의존도 낮은 지역	청송군	-34.3	-54.1	-21.7	35.4	-35.0	-75.4	-58.8	-66.9	-63.5	-61.4	-4.3	-68.1	-49.0	-44.8
	산청군	-37.0	-66.6	-17.1	-45.5	316.2	133.0	80.2	-46.1	-30.4	80.2	5.1	56.1	34.3	-44.1
관광 의존도 높은 지역	의성군	17.9	-55.2	63.7	6.9	30.7	19.5	4.6	62.1	-32.0	6.3	-32.3	7.6	-20.8	-70.4
	영양군	10.4	-12.5	10.8	304.7	28.1	14.9	-36.7	11.3	186.7	-52.3	41.5	-37.7	85.0	-74.5
관광 의존도 낮은 지역	하동군	-31.5	-57.5	-60.4	-22.9	-21.9	0.1	41.2	-14.2	-19.6	-27.9	48.0	-14.6	-8.4	-18.8
	울주군	-17.7	-27.6	-15.0	-14.0	-3.3	21.1	-27.4	-6.1	-3.7	54.3	25.6	-29.4	-28.8	-21.5

### 3) 회복시기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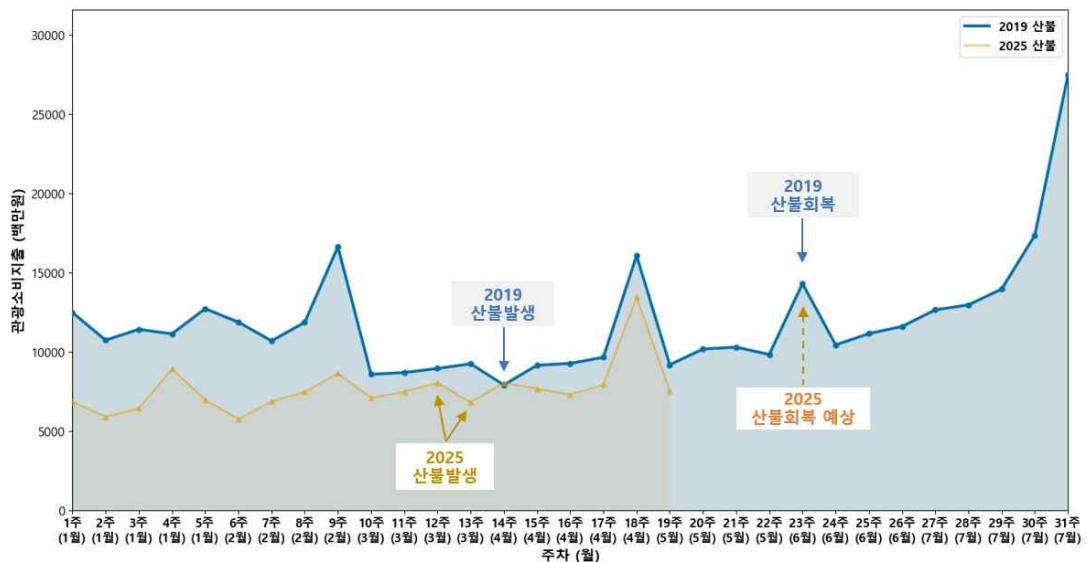
□ 2025년 경북·경남 산불로 인한 관광 소비지출은 23주차(6.2.~6.8. 산불발생 10주 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복에 진입

○ 산불 발생 직후인 13주차에는 관광 소비지출이 약 -13.1% 감소하였으며, 18주차(5월초 연휴)에는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곧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 23주차(6.2.~6.8.)를 기점으로 관광소비지출이 반등하며, 이어지는 7~8월 성수기가 회복세를 더욱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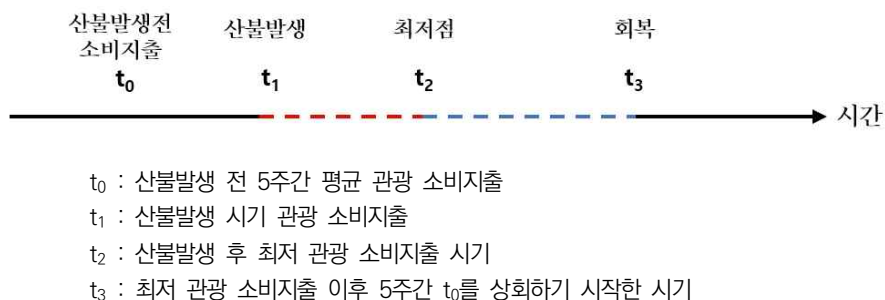
- 회복시기는 2019년 강원 산불의 관광 소비지출 회복시기를 고려하여 설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 8]에 기술함

[그림 7] 관광 소비지출 회복시기 예상



[그림 8] 회복시기 설정 과정

- 최근 대형산불인 2019년 강원 산불,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산불 중에서 2019년 산불의 회복시기를 고려하여 설정함
  - 2019년 강원 산불은 2025년 산불과 발생시기(3월말, 4월초), 발생지역(관광지 다수 포함) 측면에서 유사
  - 2022년 경북 울진·강원 산불은 발생시기가 3월초이고, 발생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수요 감소 영향이 혼재되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
- 산불로 인한 관광 소비지출 회복시기는 강기춘(2021), Han & Goetz(2015)의 논의를 토대로 산불 발생 후 관광 소비지출이 산불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간 시점을 회복으로 간주함
  - 선행연구는 충격반응력, 충격반동력 등을 산정하였으나, 본 분석은 회복 시기만 제시함
- 먼저 산불발생 전 5주간 평균 관광 소비지출( $t_0$ )을 산정하고, 최저 관광 소비지출( $t_2$ ) 이후 5주간  $t_0$ 를 상회하기 시작한 시기를 회복 시점( $t_3$ )으로 설정



## 4. 관광소비 영향 특성 및 시사점

### 1) 관광소비 영향 특성

- 2025년 3월 경북·경남 산불 발생 이후 관광업종 소비지출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음식점업과 레저스포츠업에서 감소가 컸음
  - 산불이 발생한 직후, 해당 지역의 전체 관광업종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3.1% 감소하였으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이 전년동기대비 -13.5%, 레저스포츠업이 -12.6% 감소함
    - 숙박업의 경우, 산불로 인한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응 및 복구 인력의 체류가 발생하면서 일정 부분 소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감소폭이 제한적이었음
- 4월(14~17주차)에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숙박업과 음식점업 소비가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남
  - 자원봉사자와 공공·민간기관 관계자, 복구 지원단 등이 현지에 체류하며 숙박과 음식 소비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워크숍과 회의, MICE 행사가 개최되며 관련 소비가 증가함
  -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5월 초 연휴(18주차)를 지나면서 관광소비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관광의존도에 따라 관광소비 감소폭과 회복 양상에서 차이를 보임**

- 청송군, 안동시, 영덕군 등 관광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산불 피해 이후 관광객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
  - 특히 청송군은 -40.1%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이는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탐방로가 통제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관광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14~17주차에 일시적인 소비 회복세를 보였으나, 18주차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영양군과 의성군 등 관광의존도가 낮은 지역은 생활소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관광소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음
  - 이들 지역은 14~17주차에도 완전한 회복 없이 일정 수준의 소비 감소가 지속되었음

〈표 8〉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

단위: %

2025년 경북·경남 산불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	시도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
경북 안동시	1.8	1.6
경북 영덕군	3.9	
경북 의성군	1.1	
경북 청송군	2.9	
경북 영양군	1.1	
경남 산청군	2.8	2.1
경남 하동군	1.8	
울산 울주군	0.7	1.0

자료: 통계청(2025.6.9.). 2021년 지역내총생산(GRDP)

주: 경상북도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 1.6%, 경상남도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 2.1%, 울산광역시 숙박 및 음식점업 비율 1.0%

□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관광소비는 23주차(6월 초, 산불발생 10주 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복세**

- 6월초(산불발생 10주 후)를 기점으로 여름 성수기(7~8월)가 이어져 관광 소비지출은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등은 5월초부터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 소비지출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

**2) 시사점: 산불 발생 시 관광정책 대응 방향**

□ **유사 재난 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대응 필요**

-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광산업 피해 규모는 단순히 산불의 규모나 피해 면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 관광지의 입지적 특성, 관광산업 비중, 관광객 유입 경로와 의존도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피해



정도와 소비 회복 양상이 달라지므로, 지역별 관광의존도와 산업 구조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 □ 재난 초기 체류수요 유도과 MICE·복구 인력 투입의 정책적 효과

- 2025년 4월, 범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이 본격화되며 외지인 유입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숙박업과 음식점업 소비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효과가 나타남
- 자원봉사자, 공공·민간 복구지원단의 체류 및 일부 지역의 워크숍·MICE 행사 개최는 관광객 공백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했음
- 이는 재난 발생 직후 관광수요 감소를 완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부 체류수요를 유도하는 모델이 효과적임을 보여줌
-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 ‘복구인력+공공 체류 프로그램+MICE’를 조기 가동하는 체계적 대응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관광소비 회복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강화 필요

- 산불 이후 관광소비는 5월 초 연휴(18주차, 4.28.~5.4.)에 일시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였고, 23주차(6.2.~6.8. 산불발생 10주 후)부터 여름 성수기를 맞아 회복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회복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전략이 필수적임
  - 특히 재난 이후의 관광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SNS와 유튜브·포털·여행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이미지 회복 캠페인,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여행 할인 프로모션, 지역 특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함

#### □ 재난-관광소비 회복 대응의 체계화 및 모델화 필요

-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소비 흐름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패턴을 보임
  - 산불발생 직후(3~4월) : 관광소비 급감
  - 4월(14~17주차) : 복구·지원인력 유입으로 체류소비 발생
  - 5월 초(18주차) : 연휴 및 관광 회복정책으로 일시적 소비 반등
  - 6월 초(23주차) :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본격적 회복 전환
-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재난 발생 시 관광소비의 회복 단계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강기춘(2021). 경제적 충격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력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53(2), 1-25.
- 강환웅(2025.4.24.). 서울시,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역에 2차 봉사의 손길. 한의신문.
- 경상북도(2025.5.1.).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회복과 관광활성화 위한 관광전략 본격 시동. 경상북도 보도자료.
- 권용현(2025.6.18.). 대구 북구청,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영덕에서 현장 소통. 프레시안.
- 김온유(2025.5.28.). "농산물 다 살게요" 산불지역에 '단비' 내렸다...지역상생 롤모델. 머니투데이.
- 김종현(2025.4.6.).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에 자원봉사자 1만여 명 참여. 브릿지경제.
- 문화체육관광부(2025.4.23.). 최근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관광으로 회복 지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박소정(2025.4.9.). 정부, 산불 피해 울산·경북·경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조선일보.
- 박진호(2025.5.3.). 안동시, 산불 극복과 지역상생 실현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성료. 뉴데일리 대구경북.
- 산림청(2025.4.18.).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규모 잠정 104천, 산림청 복구에 최선. 산림청 보도자료.
- 산림청(2025.5.16.). 우리나라의 대형산불, [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1157 &mn=AR04\\_01\\_04\\_04](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1157&mn=AR04_01_04_04).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2025a). 주왕산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에 따른 통제탐방로 부분개방 공고. 제 2025-7호.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2025b). 주왕산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에 따른 탐방로 통제 공고. 제2025-8호.
- 최수호·이강일·김선형(2025.3.28.).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여의도 156개 면적 잿더미(종합). 연합뉴스.
- 통계청(2025.6.9.). 2021년 지역내총생산(GRDP).
- 하종숙(2025.5.2.). "5월 산불피해 지역으로 여행·관광 떠나요"... 지역소비 회복 일익. 국토일보.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5.4.12.). 3.21.~4.12. 산불 대처상황.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5.5.2.).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자료.

황성호(2025.6.8.). 한국원자력환경공단·포항고용노동지청, 영덕서 노사정 워크숍 열어. 경북매일.

Han, Y., & Goetz, S. J.(2015). The economic resilience of US counties during the great recession. The Review of Regional Studies, 45(2), 131-149.

Nara Space(2025.5.29.). 2025 대형 산불 피해 발생 현황 : 울산·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분석, <https://ep.naraspace.com/ko/post/contents/2025-march-south-korea-wildfire-damage-analysis-total-impact-in-ulsan-sancheong-and-uiseong-regions>.